

# 참선자 올바른 길 인도위한 수단



(28) 할(喝)

선승들은 제자들로부터 "무엇이 부처(진리)입니까?" 또는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하고 질문을 받으면 간혹 이론적인 대답 대신 가슴이 찡찡할 정도로 '할(喝)' 하고 소리를 내드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할'은 큰 소리로 고향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거나 또는 알음알이나 분별심을 꾸짖는 행위로서 참선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교육용 수단입니다. 따라서 음성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

## '할' 처음 사용한 사람은 마조 선사 제자와 선문답 중 '할' 외치자 깨달아

다. '갈'로서 그냥 호호치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망상 피우지 말라' '알음알이를 내지 말라'는 의미이므로 '악' '의' '팩'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말에 '한 번 큰 소리로 꾸짖다'는 의미로 '일갈(一喝)'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의상으로는 같습니다.

선문답에서 '할'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체로 화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때론 제자가 잘못 수행하고 있음을 질타하고자 할 때, 알음알이 등 분별심을 갖지 말라고 할 때 사용하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칭찬하는 의미의 '할'도 있고,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의미의 '할'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할'인지 그것은 앞뒤 문장과 분위기를 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수행승에게 '할'을 사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게 했던 분은 중국의 유명한 선승 임제(臨濟義玄, ?~867)입니다. '임제할'이라는 별명이 불을 정도로 자유 자재하게 '할'을 사용했던 그는 덕산 선사의 '방(棒)'과 함께 기봉(機鋒, 선의 액션으로서의 쌍벽을 이루었던 선승입니다. 그의 법어집 <임제록>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할'에 번호 (1) (2)를 붙여서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上堂. 有僧出禮拜. 師便喝(1). 僧云. 老和尚莫探頭好. 師云. 爾道落在什麼處. 僧便喝(2). 又有僧問. 如何是佛法大意. 師便喝(3). 僧禮拜. 師云. 爾道好喝也無. 僧云. 草賊大敗. 師云. 過在什麼處. 僧云. 再犯不容. 師便喝(4).

임제 선사가 법문을 하기 위하여 설법당으로 올라가자 어떤 스님이 나와서 합장했다. 임제 선사가 곧바로 '할' (1)을 하자 그 스님이 말했다. "임제노 화상께서는 '할'로 사람을 탐색하지 마십시오." 임제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내가 '할'을 한 이유를

아는가?" 그 스님이 곧바로 '할' (2)을 했다. 또 어떤 스님이 질문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大意)입니까?" 임제 선사가 곧바로 '할' (3)했다. 그 스님이 합장하니 임제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나의 이 할(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스님이 말했다. "산적(제가)이 크게 패배했습니다." 임제 선사가 말했다. "허물(잡뭇)이 어느 곳에 있느냐?" 그 스님이 "두 번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고 말하자 임제 선사가 곧바로 '할' (4)했다.

앞의 선문답에서 (1) (2) (3) (4)로 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할'은 모두 네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할'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1)번 할은 번역문과 같이 합장 즉 인사(안녕하시 온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나는 별 일 없는데 그대도 잘 있는가?' 정도가 되겠지요. 물론 더 깊이 해

석한다면 합장 속에 는 "노화상은 여전히 본래면목의 자리를 잡지

키고 있습니까?"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2)번 할은 반대로 그 스님이 임제 선사에게 던진 할입니다. 임제 스님이 "그대는 내가 '할'을 한 이유를 알고 있는가?"하고 물은 데 대한 대답입니다. 물론 알고 있다는 뜻의 '할'입니다. (3)번 할은 또 다른 어떤 스님이 임제 선사에게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大意)입니까?" 하고 묻자 '할' 했는데, 여기서 '할'은 "바로 이 할이 그대가 묻고 있는 불법의 대의(大意)일세"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두, 선의 진리를 표출하고 있는 할입니다. (4)번 할은 "큰스님께서 할을 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데 대한 답변으로서의 '할'입니다. 말하자면 과오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뜻의 '할'입니다.

이와 같이 '할'에도 '긍정적인 할'과 '부정적인 할', '대답하는 할' '질타하는 할'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망상을 꾸짖을 때, 사랑 분별심을 갖지 말라고 질책할 때 그리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선의 이치를 표현할 때 등, '할'의 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할'은 임제 선사가 많이 썼지만 처음 사용한 사람은 마조 선사입니다. 제자인 백장 스님과 선문답을 할 때 처음으로 '할' 하고 큰 소리를 내질렀는데, 그 소리에 백장이 3일 동안 귀가 멀었다고 합니다. 귀가 멀었다는 것은 충격이 컸다는 것으로 결국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할'의 소리에 번뇌 망상이 끊어졌다는 뜻인데 3일 동안 귀가 멀었다고 하니 중국 사람들의 행동도 어지간합니다.

'할'은 상대가 미워져 소리 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투는 거칠어도 마음속으로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덕산의 '방'도 같은 의미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 깨달음은 여인들의 수행법

# 손가락 하나 세우니 만법이 서다

(28) 실제 비구니

당나라 때,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선사의 법을 계승한 제자 중에 실제(實際라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다. 이 스님은 '일지선(一指禪)'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떨친 구지 선사를 발심시켜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끈 선지식으로 어록에 등장한다. <조당집> '구지화상전'에는 두 선사의 기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구지 화상은 천룡(天龍) 선사의 법을 이었고 경안주(敬安州)에 살았다. 그 밖의 행적은 알 수가 없어 기록하지 못했다. 선사가 암자에 살고 있을 때

에 실제(實際라는 비구니가 와서 샷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선사의 선상을 세 바퀴 돌고는 주장자를 우뚝 선사 앞에 세우고 서서 말했다.

'화상이여! 어떤가. 한 마디 이를 수가 있는가? 만약 한 마디 이를 수 있다면 샷갓을 벗지 않겠소.'

똑 같은 말을 우렁차게 세 번이나 거듭했지만 선사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비구니는 그냥 떠나려고 했다. 이에 선사는 말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하루 저녁 묵어가도록 하시오.'

이에 비구니는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묵어 가겠지만, 대답을 못하시면 이대로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떠나 버렸다.

이때 선사는 혼자 탄식했다. '나는 명색이 사문이라고 하면서 비구니의 웃음 거리가 되었다. 외람되어 장부의 형상은 갖추었으

나 장부의 작용이 없구나! 이 산을 떠나 선지식을 두루 견진하라.'

그리고 조용히 선정에 드니 갑자기 어떤 신인(神人)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3·5일 안에 큰 보살이 오셔서 화상께 설법해 드릴 것이오.'

그런지 열흘이 지나지 않아 천룡 화상이 왔거늘 선사는 뛰어나가 말에 짚을 하고 맞아들어 모시고 서서 앞에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러자 천룡 화상이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이니, 즉시 환히 불발을 깨달았다.

선사는 그 뒤로 대중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 구지 선사 발심 시켜 깨달음에 이끈 선지식으로 알려져 한 손가락으로 일체 번뇌·망상 잠재운 구지선사와 같은 체형

'내가 천룡 화상에게 일지선(一指禪)을 얻은 뒤로 평생 동안 사용해도 다 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구지 선사는 마조도일 선사의 제자 대매법상(大梅法常: 752~839)의 법을 잇는 천룡 화상의 제자가 되었다. 그후 선사는 수행자들이 찾아와서 불법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할지라도 단지 한 손가락만을 세울 뿐, 한 마디도 이르지 않았다. 그의 선을 '한 손가락(一指禪의 선禪)'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행자들의 온갖 질문에 손가락 하나로 같은 대답을 하고, 이러 저러한 확인들의 온갖 분별의식을 한 손가락으로 잠재운 구지 선사의 법력은 실제 스님의 지도에 의해 비롯된 것이었음은 말 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탁마 과정에서 비구, 비구니, 거사, 노파라고 하는 남녀와 승속의 차별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위 문답에서 실제 스님이 선상을 세 바퀴 돌고 주장자를 우뚝 세운 것이나, 천룡 스님과 구지 선사가 한 손가락을 세운 것이나, 양산 선사가 한 획을 그은 것이나, 무수한 선사들이 주먹이나 면지떨이(拂子)를 세우거나, 고향을 지른 일들이 같은 가, 다른가, 이것을 모양과 언어로 이해한다면 차별 경계에 떨어지겠지만, 형상과 고정관념을 여의고 본다면 물이 아닐 것이다.

선종에서 '하나(-)'는 불법의 근본인 진실, 진

여당체, 본래면목을 표현하는 불립문자의 경지를 상징한다. 또 '물(二)'은 언어로서 진리를 체득하는 대기설법에 해당

한다. 때문에 하나를 알면 일체를 알게 되기에, 구지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인 뜻을 깨달으면 삼라만상의 이치를 요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를 깨달은 의상 대사는 '법성계(法性觸)'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다. '법의 성품 원용하여 두 모양이 본래 없고/ 모든 법이 동(動)한 것이 없으니/ 깨달아서 알면 다른 방법은 모르리라/ 참된 성품 깊고 깊어 지극히 미묘하여/ 자성만을 지키지 않고 인연따라 나타내네/ 하나 속에 모두 있고 일체 속에 하나 있어/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이니...'

김성우 기자

## 신행게시판

●백담사 **행복한 나를 찾아서** =인제 백담사가 행복한 나를 찾아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도량석 탑돌이를 시작으로 사물처럼 예불, 108배, 삼악산 순례, 자비명상, 돌탑쌓기 페스티벌, 만다라 명상, 우뻛사나 수행, 꿈의 요가, 걷기명상, 발우공양, 행복소원안조인들기, 차운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1차는 7월 31일~8월 2일, 2차는 7~10일 열린다. 동참금은 1만원 (033)462-5565

●인드리망생명공체 **10주년 축제미당** =인드리망생명공동체가 10주년을 기념하고자 인드리망 10주년 축제미당 지리산 아담법석을 개최한다. 7월 31일~8월 3일 직은학교, 실상사 농장 등에서 벌어질 '지리산 아담법석'에는 숲길걷기, 명상, 돌놀이, 도법스님 법문, 화엄광장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신청마감은 7월 25일까지 (02)676-1886

●석왕사 **방생법회**=부처 석왕사가 8월 16일 방생법회를 떠난다. 기원머, 운문사, 사사사를 둘러보고 오계 월 이변 방생법회의 동참금은 3만원이다. (032)663-7771

●미항사 **참사람의 향기** =해남 미항사 참사람의 향기 참선수행캠프(8월 8일 16~24일 8박9일간 열린다. 이번 캠프는 스테이는 기존 참가자를 대상으로 신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수행비용은 매일 6시간의 참선수행,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수행체계 법문, 다도 등이다. (061)533-3521

●대원불교대학 **휴학기 신입생 모집**=대원불교대학 서울(02-707-1072)·부산(051-583-7811)에서 2년제 대학 불교학과, 명상학과, 불교상담치료학과, 2년제 대학원 불교학과,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3년제 법사과정 9월 1일까지 모집한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진화주제는 본래는 언제라도 되돌아간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cente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매일경제신문 인제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21세기 불자 자가(自家)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이 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므로 불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입니다.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1949년 전남 순천출생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법우부 법치예행 자원봉사위원 역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총무원장, 중앙총회의원 역  
·한양대학교 대학원교수  
·한양대학교 대학원교수  
·한여래암 주지  
[본문]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원시불교의 선경사상에 대한 연구  
·Buddhism과 인도철학의 제학파의 비교 연구  
·공자상에 대한 일 고찰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공서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기본학습  
제 2장-중요경전  
제 3장-불공편  
제 4장-진언과 다니리  
제 5장-각종발원문  
제 6장-기도체현수기  
제 7장-불사출판수지공덕  
제 8장-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자가기도법  
제10장-불교기초지식  
제11장-권선문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com / cafe.daum.net/yerae.com

**입종안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호주  
총회위원장 법달 원정  
교육위원장 호타 원공  
사정위원장 무착 호산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총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서 불기 252년 5월 1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중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

**탈종 · 폐사 공고**  
●사찰명 : 법륜사  
●법명 : 도선  
●지역교구 : 청주 교구원  
●폐사일 : 2003년 4월 30일  
●주소 : 충북 청주시 사직 1동 282  
상기 교구의 사찰 및 사원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사 되었으며 또한 귀중단의 중지중풍이 맞지 않아 늦게나마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해동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